

Biotech 신흥기업 살기 힘들다!

미국, 대기업과 매출 차이 300억달러 ... 자본악화에 판로 차단

대규모 바이오테크(Biotech) 기업과 소규모 신흥기업들의 매출액 및 판로 잠재력 차이가 크다는 것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리드기업들은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자본시장이 악화되고 제약기업들이 파트너십을 통해 바이오테크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최근 대기업들이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판로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중소기업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컨설팅기업 Datamonitor PLC에 따르면, 상위 10위권인 Amgen, Genentech, Serono, Genzyme, Chiron, Biogen, Gilead Sciences, MedImmune, Celtech 및 Idec의 2001년 매출액은 128억달러로 Amgen과 Genentech이 각각 44억8000만달러, 17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57.4%를 차지했고 Genentech, Serono, Genzyme, Chiron 및 Biogen 등 5사의 매출액은 10억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신흥기업들 중 상위 12위권인 Millennium Pharmaceutical, Vertex Pharmaceuticals, Celera, Isis, Scios, Oxford Glucoscience, Xoma, MorphoSys, Human Genome Sciences, Antisoma 및 British Biotech 등의 2001년 총 매출액은 7억1700만달러에 불과하고 순손실액은 9억300만달러에 달했다.

신흥기업 중 상위 3위인 Millennium, Vertex 및 Celera가 총 매출액의 734.5%를 차지했는데, Millennium이 2억4600만달러로 25.5%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Vertex가 2001년 1억6700만달러, 2000년 1억540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판로확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 대기업과 신흥기업의 매출액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신흥 바이오테크기업의 매출액

(단위: 100만달러)

| 구 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소분자 | 170.2 | 217.5 | 323.1 | 423.6 | 543 | 647.4 |
| Therapeutic Proteins | 97 | 171 | 243 | 328 | 433 | 542 |
| 항 체 | 40 | 44.3 | 62.4 | 123.5 | 204.5 | 312.4 |
| Antisense | 4.4 | 38 | 107.1 | 42.7 | 81.8 | 116.9 |
| Genetic Therapies | 0 | 0 | 0 | 0 | 7.5 | 11.7 |
| 합 계 | 311.6 | 470.8 | 735.6 | 917.8 | 1,270 | 1,630.4 |

자료) Datamonitor

Datamonitor는 몇몇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Biotechnology 자본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신흥 Biotechnology 기업들이 판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 미국 바이오테크산업의 자본시장은 104억달러로 2001년 119억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2002년 파트너십 거래는 75억달러로 2001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화학저널 2004/04/20>